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2년도 표어 ◎

성령이여 교통케 하소서 (고후13:13)

◎ 행동지침 ◎

- 1. 내실있는 교회 되어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생활을 실천한다.
- 2. 성숙한 교회 되어 이웃과 세계교회를 섬기며 화평과 연합을 도모한다.
- 3. 책임있는 교회 되어 지역사회와 민족 앞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한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2002 홍해작전 승전 2일 앞으로

-6월25일을 승전의 날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40:1)"는 말씀을 주제로 이룬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전진하고 있는 2002 홍해작전이 오늘로 18일째 행군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홍해작전은 강사인 이종운 목사를 통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며 기독교 기본 교리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어 홍해작전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참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이제는 남은 2일을 은혜가운데 지내며 승전의 날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다. 교회는 25일(화) 오전 5시를 2002 홍해작전 승전의 날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모든 성도는 이 날을 기억하고 승전을 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2002년 농촌전도대 파송

8월 6일(화) - 9일(금) · 충남 예산 목양교회로

매년 여름 농어촌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대상으로 농촌전도대를 파송하여 단기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농어촌 교회의 부흥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는 금년도 농촌전도대를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충남 예산의 목양 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하였다.

목양교회(담임목사: 인태균)는 1973년에 설립되어 장년 20명, 학생 10명, 아동 10명이 출석하고 있다. 지역은 담배농사로 비교적 부유한 대신에 복음화가 미약하여, 농촌전도대 파송을 개기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도위원회(위원장: 왕경래)는 농촌전도대원으로 봉사할 성도들을 다음 주부터 신청 받기로 했으며 농촌전도대 활동분과는 전도 분과, 교육 분과, 찬양 분과, 행사 분과, 홍보 분과, 의료 분과, 이·미용 분과, 취사분과, 지역봉사분과, 회계분과 등 10개 분과로 결정되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로 파송 받아 한여름 피약별 아래 함께 땀을

흘리며 전도와 봉사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은사에 합당한 분과로 지원하면 된다.

또한 직접 참여하여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못한 성도는 기도와 물품과 헌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필요한 물품은 교회지붕보수, 선풍기, 티셔츠, 전선, 형광등, 차광막, 돛자리, 비닐, 밥상, 현수막, 수은등, 텐트, 침구, 의약품, 돋보기, 비누, 수건, 치약, 개인위생도구, 엠프, 홍보용지등이다.

참여를 소원하는 성도는 깊고 간절할 기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파송 받게되는 금년도 농어촌 전도대도 은혜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한다. 2002 농촌전도대원 신청서는 다음주 주보에 간지로 삽입될 예정이며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에바다부 수화찬양단 및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

우리교회 청각장애인 부서인 에바다부(부장 홍성주 장로)는 수화찬양단을 모집한다. 수화교실 중급반 이상 수료한 성도는 누구나 수화찬양단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또한 에바다부는 중급반과 고급반 수화교실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중급반 수강은 초급반 과정을 이수한 성도, 그리고 고급반은 중급반 과정을 이수한 성도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

(6월 21일자 태신자 명단)

장민아 고혜연 김간예 김민정 김유택 김중례 김주용 김지선 김지윤 김한성 남성인 문연경 문영국 문창경 민원홍 박예빈 박은빈 박지은 박 철 백성중 서동희 서수민 양승호 양혜숙 오창희 유은중 유정아 이경미 이관일 이동민 이승학 이영준 이은서 이재영 이정민 이지은 이지희 임진수 정해민 조남숙 조중형 조혜진 지중혁 차인준 최성익 최정민 피은수 하원석 한준순 허창 (다음주 계속)

† 단신 †

· 중등부, 고등부는 오는 7월13일(토) 오후 2시 모동교회에서 갖는 강남노회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 기독교 찬양경연대회에 출전한다.

· 중등부는 오는 6월30일 (주) 4복음서(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를 중심으로 성경퀴즈대회를 가진다.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개역개정판 롬 14:16-17)

Do not allow what you consider good to be spoken of as evil.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eating and drinking, but of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NIV Ro 14:16-17)

이시아서 강해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소서

(이사야 63장 15 - 19절)



이종운 목사

과거를 회고하며 감사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현실로 돌아와 저들의 환란과 곤경을 아파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구원의 내용은 죄와 고난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대로 추정됩니다.

1. 하나님께 탄원한다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돌보아 달라고 탄원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살피시며"(15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계시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아 주셨듯이 지금도 살펴보아 달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끈고함을 보시고 구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어 동정과 관심으로 보아달라고 간청합니다.

(2)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에 호소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15절).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지난날의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화로 홍해를 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외칩니다. "열성과 능력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당신의 그 열성이 끊어진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이 그쳤다고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의심하거나 낙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의 열성과 능력을 사모하는 심정의 표현이며 탄원입니다.

(3)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16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 되심은 출애굽 당시에 계시되었습니다(출 4:22). 모든 것을 보급해 주시는 아버지, 보호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개념이 출애굽 당시에 계시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16절).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야곱)도 이미 죽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시며 구속자이시니 이 곤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2. 탄원의 내용

(1) 백성들을 떠나지 마시고 돌아오시옵소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17절).

하나님의 공화와 열심은 크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큼니다. 선지자는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계속 주실 것을 기대하며 탄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이가 여호와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강박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한 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스스로 강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죄 가운데 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본래 선한데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죽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자격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율적으로 주의 길에서 떠났고 강박했으며 주를 경외하지 않았습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두신 것입니다.

멀리 떠나신 것처럼 생각되는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탄원의 기도는 환란 중에 있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구원받는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이며 당신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나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18절).

이사야 선지자는 미래에 무너질 성전을 생각하면서 과거사로 미래사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를 말할 때 과거로 말하는 어법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오래지 않아 바벨론이 점령하고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속히 하나님을 떠났음을 보여줍니다.

포로시대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환란으로 인해 그들 마음은 강박해졌고 예배드릴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믿음도 없어진 데다가 환경도 열악하게 되고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집과 성이 파괴된 것도 슬픈 일인데 성소까지 유린당했습니다. 그들은 탄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탄

원은 항상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자비와 구원을 탄원한다

①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주의 공화와 능력과 열심을 이제도 보여주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15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위로를 위해 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오날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열심히 특심하신 분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공화(공화)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호 11:8).

이처럼 하나님의 공화와 열심은 크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보다 큼입니다. 선지자는 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근거로 계속 주실 것을 기대하며 탄원합니다.

②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면서 탄원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16절).

아버지는 잠시 자녀를 노여워할지 모르나 천륜의 애정의 힘을 통하여 화해를 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 희생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③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유주시고 경영자시며 구속주이시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종이고, 그의 소유물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④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한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18절).

이것은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의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며 땅을 빼앗긴 일을 호소하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도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⑤ 주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19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절되었고, 포기되었으며 멸시당했고, 짓밟힘을 당하였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해 달라고 탄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호소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호소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 호소하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달라는 호소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02 용매직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홍해작전 승전을 5일 앞둔 6월 23일 많은 성도들이 홍해작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며 은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일부를 정리하였다.

이영주 집사(식당): 저는 이번 홍해작전중 식당에서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아침을 굶고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후방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매일 100명을 상회하는 많은 성도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그분들이 비록 간단하지만 많은 성도들의 도움으로 준비된 식사를 즐겁게 하시는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에 집이 안산이라 너무 멀어서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몸도 몹시 고단하지만 너무나 많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정식 집사(바울 선교회장, 1교구):저는 홍해작전에 참석 하기위해 요즘 교회에서 숙직을 하다싶이 하고 있습니다. 집이 교회에서 가깝지만 집에 있으면 긴장이 너무 풀어져 아차 하면 빠지게 되더군요. 특히 이번 홍해작전에는 하이텔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 도저히 빠질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자면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오광환 집사 (고등부 부장, 12교구): 저희 가족은 매일 아침 군에 가있는 아들을 제외한 모든 가족(3명)이 매일 3시30분에 일어나 급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 딸은 첫날 하이텔베르그 요리문답 책자를 받아들고 이렇게 귀한 말씀도 있구나 하며 매일 새벽 온가족을 깨우고 있습니다. 학업이외의 모든 약속도 취소하고 수요일도 빠짐 없이 나의 열심히 메모하며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빛내는 믿음의 전사들



▲지난 14일 포르투갈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경기 종료후 그라운드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 왼쪽부터 송종국 이영표 최태욱 선수다.

잘 차더라"며 이영표, 송종국 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갈 때 따라나서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 이 선수의 어머니는 이미 전부터 독실한 신자였는데 요즘은 경기 때마다 절야기도를 드리며 아들 천수가 "골을 넣으며 운동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16일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이 선수는 첫 골을 넣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이 밖에도 현영민 선수가 선배들의 인도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 최태욱, 송종국, 이영표, 이천수 그리고 현영민 선수는 대표팀 내에서 매주 함께 모여 기도회와 성경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다. 김태영 선수는 전남 광양시의 대광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이운재 골키퍼도 독실한 부인과 장모의 기도도 열심히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두리 선수도 아버지 차범근씨의 든든한 기도 후

사들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을 밑으로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송종국 선수가 아랍에미리트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뒤 주저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TV방송을 탄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에서 최태욱 선수가, 스코틀랜드전에서 이천수 선수가 기도하는 골 세레모니를 연출했다. 또 지난 14일 포르투갈 전에서는 아예 경기 시작 전 이영표, 최태욱, 송종국 선수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손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다. 특히 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면서 온 나라가 이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 순간 이영표 선수는 JESUS(예수님)이라고 적힌 속옷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세계인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했다. 이영표 선수는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한데다 16장에서 만난 이탈리아전에서도 안정환 선수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한국팀을 승리로 이끈 일등공신이 됐다.

1. 믿음의 전사들 면면

대한민국은 지금 월드컵으로 나라 전체가 '월드컵 용광로'에 빠진 듯하다. 특히 사상 첫 16강 진출의 위업을 달성한 데 이어 승승장구 승리의 행진을 계속한 한국 선수들 때문에 온 국민은 더욱 열광하며 이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시선을 놓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일반인과 달리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출전한 23명의태극전사들 가운데는 유독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경기 때마다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는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스컴들은 그동안 이들의 신앙에 관해선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과연 우리 선수들 가운데 신앙을 가진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 지금까지 알려진 기독교인은 최태욱, 이영표, 송종국, 현영민, 이천수, 안정환, 이운재, 김태영, 이민성, 차두리 선수 등 10명이다.

우선 가장 독실한 선수로 알려진 최태욱 선수는 대표팀 내에서도 '최목사'로 통할 정도로 신실한 일꾼이다. 인천 부평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 동료 선수의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그는 그 때부터 인천 만수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휴가 때면 동료 선수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가갈 정도라 한다.

송종국 선수도 널리 알려진 믿음의 전사다. 중학교 2학년때부터 형을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했다. 현재 강동제일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송 선수는 "만성질환인 무릎 통증을 기도로 고치고 대표팀에 발탁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간증을 전하고 있다.

또 주목해야 할 신앙인 선수가 바로 이영표 선수다. 이 선수는 지난해 4월 이 선수의 팬인 은누리교회 박 모 집사의 전도로 신앙을 갖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지금도 수시로 만나면서 성경공부와 1대1 제자훈련을 한다. 그는 이제 "대표팀에 선교단을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열혈성도가 됐다.

위의 세 선수의 도움으로 최근 믿음을 갖기 시작한 선수가 바로 이천수다. 이 선수는 "교회 다니는 형들이 공동



▲사진 왼쪽부터 이영표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한 뒤 JESUS(예수님)라고 적힌 속옷을 보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과 믿음의 전사들이 골을 넣은 뒤 그라운드에 무릎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

원을 받고 있고 차범근씨 신앙은 이미 널리 알려진바 있다. 최근에 결혼한 안정환 선수의 부인 이해정씨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벌써부터 새벽기도와 아침 금식기도로 태극전사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있다.

대표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술과 담배, 여자 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결국 대표팀에서 탈락했지만 신앙을 가진 선수들은 절제된 생활로 꾸준하게 기량을 발휘하면서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2.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 하나님을 증거한다"

최근 유명 인터넷 기독교사이트인 갓피플닷컴(www.Godpeople.com)이 기독교인 네티즌 1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85.5%가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는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응답했다. 믿음의 태극전

3. 월드컵은 선교한국의 날개

대한 축구협회장인 정몽준씨는 우리나라의 월드컵 개최에 대해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성장을 이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전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독일 튜빙겐 대학의 선교학 교수였던 피터바이어하우스 박사는 최근 독일의 한 기독교잡지에 낸 기고문에서 "월드컵 경기와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 16개국 축구단과 관광객들은 한국의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감동적인 모습은 물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새벽 예배에 매우 놀라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 "한국 대표팀의 상당수가 크리스천이며 골을 넣을 때마다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으로써 신앙고백을 한다"면서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은 한국팀이 비록 우승 후보에는 속해있지 않더라도 진정 많은 골을 넣기를 바라야 할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드컵을 성공적인 선교의 날개로 삼기 위해 한국대학생선교회(C.C.C)를 비롯해 Goal 2002 전국위원회나 2002 월드컵 기독교시민동행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활동중에 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일 것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가적 대사가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그리고 성대하게 치러져 선교한국의 힘찬 날개가 될 수 있도록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김민철(편집부)



다락방 모범사례



김의진 집사(9교구 10다락방)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떨리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다락방장이라는 직분은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2000년 6월 11일 L.T.C 과정을 마친 후 바로 다락방장 임명을 받았습니 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지식도 없고 식구들 앞에 설 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떨려서 공과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부름꾼이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식구들을 위해 늘 기도하면서 주일예배와 수요 예배 다락방장 공부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또 자신감을 잃고 낙심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종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제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손을 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락방을 소개 드리면

1. 우리 다락방은 4가정입니다.-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된 다락방입니다.
2. 낮에는 직장문제, 사업문제로 바쁘셔서 주로 저녁시간에 모임을 갖습니다. 저는 수시로 문안드리며 시간을 정합니다.

3. 음식은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없고, 물 한잔 또는 집에 있는 대로 부담 없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4. 우리 다락방은 적은 수가 모이지만 찬양으로 시작해서 말씀전하고 기도가 시작되면 모두 피곤함도 잊은 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제목 을 놓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정으로 사랑으로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원하는 뜨거운 눈물 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도 다락방장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되었고 제가 구한 것 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늘 범사에 감사하며 저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아름답게 사용되는 필요한 도구 가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우지원 집사(3-4남자다락방)



부족한 저에게 남자 다락방사례발표 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막상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저희 3-4 남자다락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인원은 모두 24명으로 대부분 교회출석에 모범을 보이는 분들로 주안에서 끈끈한 사랑으로 뭉쳐진 부부중심의 모범 다락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연말 난생 처음으로 다락방장으로 명을 받은 후 저의 부족함과 허물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막상 저에게 이 소임이 주어

기도하는 맛을 한창 즐기고 있었다. 김집사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일성수할 수 있는 직장도 가지 고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는 귀한 합주단 되시길 기도드린 다.

한가족 12팀은 원래 전집사님 내외를 빼고는 저녁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cop를 계기로 모두 찬양예배를 참석하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는 즉시 cop기도를 한다고 한다. 김집사님은 cop를 통해 아는 사람이 생겨 재미도 있고 만나가던 다락방도 나가게 되고 교회의 부서 활동에도 참가하게 되었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팀장인 김집사님은 cop로 기도할 일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바쁜 가운데도 매주 만나 친밀감이 있고 구체적으로 기도내용을 앞으로 cop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고 한다. 심성도는 cop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응답을 받음으로 믿음과 기도가 체질화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 모양처럼 모양으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깨운다고 생각했다.

한가족 11팀은 찬양예배를 안 드리는 가정이 있어 안타깝지만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김집사의 남편 최집사님의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도하며, 조집사님의 사업장 이전, 고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지자 걱정이 앞서고 솔직히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장으로 명을 받은 이상, 이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무감에 간절 한 기도와 다락방 식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거는 일부 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통명스럽게나 짜증 섞인 응답이 되돌아 올 때마다 솔직히 맥이 풀리고 같은 식구로부터 그런 말을 반복하여 듣게 되자 전화 걸기가 두려워지기 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락방 일로 제가 요즘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웠사오니 이 무익한 중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였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다락방 식구들에게 1)사랑의 마음으로 2)적군이 쳐들어 올 때 파수꾼이 확고히 나팔을 불듯 시급히 행하고 3) 끝까지 인내하되, 먼저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여라는 엄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교만하고 나태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날날이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생각을 바꾸고 사랑의 마음으로 연락을 드리자 여러 분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 주시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쌓이 니까 단순하게 연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로 도우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즈음의 제 기도제목은 저희 다락방 식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몸 된 서울교회에 다 출석하며 믿음생활 잘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지난 20일 장로회 신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으로 피선되었다.

이날 13개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흠어진 장로교회를 하나로 묶는 좋은 학회가 되도록 기도지원을 바란다.

■ 개업: 강선조, 정계환집사 가정(1교구) 평촌뉴코아 백화점 양념육점 (011-9872-2767)

김정은(1교구): 페르드 글라스 아이스크림점 개업 407-7730

■ 최정대 집사, 이영순 집사 가정(2교구) 강남실령학 확장개업 547-1469

■ 독남: -12교구 신철욱 성도, 송수진 성도 6월 15일 독남 -9교구 탁정환 성도, 정혜리 성도 6월 17일 독남

■ 이사: 이영주집사 최양혜권사(2교구) 서초동 삼풍아파트로

■ 하원일 성도(하영수 장로 장남)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 졸업

☎ 금주의 식사제공: 홍동기, 조정옥 집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기도 행기가 교회를 진동한다 (II)

-COP 발족 세 달을 맞으며-

김장로님이 계신 한가족5팀을 찾아 2시 40분 603호실을 찾았다. 이 팀은 특히 새벽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많으시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김집사님의 찬양인도로 시작하여 각 가정을 위한 기도를 통성으로 한 뒤 장로님의 마무리 기도로 끝낸다. 합집사님은 새벽마다 cop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 간사인 안집사의 열심있는 연락으로 몸이 아픈 김집사님 내외를 빼고 9명이 모여 김집사님의 쾌유를 위해, 시아버님과 3대가 함께 살며 신앙생활하기를 위해, 고3인 태완이를 위해, 남편의 신앙회복을 위해, 바쁜 가운데 많은 봉사하는 정집사님의 현장 일을 위해, 낮모르는 안타까운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이 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가족 10팀은 매주 3시 15분 3층 예배실에서 만나는데 주말에도 직장을 나가야하는 중국 교포부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잘 모르는 성도들이 만나 서로를 위해 중보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월드컵 성공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2. 흥해작전에 참여하여 승전 할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